

보도시점

배포

2026. 6. 19.(금) 9:00

한-스리랑카 디지털 재정협력 확대 논의

- 임기근 차관, 스리랑카 디지털경제부 차관 등 고위급 연수단 접견
-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국가재정 운영 혁신 성과 및 정책 시사점 공유

임기근 기획예산처(이하 '기획처') 차관은 '26.6.19(금) 스리랑카 정부 고위급 초청연수단을 접견하고, 한국의 디지털 기반 국가재정 운영 혁신 경험을 공유했다. 스리랑카 측에서는 알로카반다라 공공행정·지방정부부 차관, 다나팔라 디지털경제부 차관 등 고위급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수단 방한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 주관 개도국 정책 역량 강화 사업인 「스리랑카 콜롬보시 세무행정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세무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디지털 재정 및 세무행정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 스리랑카 고위급 초청연수 개요 >

- ▶ 방문기간 : '26.6.17(수) ~ 6.24(수), 7박 8일 간
- ▶ 방문자 : 스리랑카 공공행정·지방정부부 차관, 디지털경제부 차관 등 5명
- ▶ 방문목적 : 한국의 조세정책, 재정 운영체계 및 지방재정 구조 사례 연구
- ▶ 방문기관 : 기획예산처, 국세청, 서울특별시, 한국재정정보원 등

임 차관은 한국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기반으로 한 통합 재정관리 경험을 소개하며, 재정의 전 과정을 디지털 기반으로 연계·관리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러한 경험이 인공지능(AI) 기반 재정관리로의 전환에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이 국가예산 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 대국민 재정정보 공개 플랫폼인 '열린재정' 사례를 소개하며, 재정 운영의 투명성 강화와 정책 신뢰 제고를 위한 노력을 설명했다.

스리랑카 측은 한국의 디지털 재정관리 시스템과 재정혁신 사례에 높은 관심을 보였으며, 재정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강화 측면에서 자국 정책 설계에도 유의미한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스리랑카는 물류·관광·인적자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인해 최근 수년간 경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따라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재정관리 시스템 고도화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었다.

* 스리랑카는 '22년 채무불이행 선언 후 국제통화기금(IMF)의 금융지원('23~'26, 약 30억불)을 받고 있으며, IMF측 권고사항(재정관리 투명성 강화, 부패관리 등) 이행 중

기획처는 앞으로도 개도국의 재정거버넌스 개선과 디지털 기반 재정관리 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재정정보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재정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개도국의 지속 가능한 재정역량 강화에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국제재정협력과	책임자	과 장	황유실 (044-214-1930)
		담당자	사무관	정혜림 (jhrim14@korea.kr)

